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7)

투편단류(投鞭斷流), 채찍을 던져 강물을 막을 수 있는가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병력과 무기, 경제 규모만 보면 승패는 이미 정해진 듯하다. 그러나 상대의 군대를 파괴하는 것과 그 국민의 의지를 바꾸어 원하는 질서를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26년 2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밀무기로 이란을 공격했으나 현재까지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세 경우의 역사적 배경과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질문은 같다. 그 무력 사용은 상대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격국의 안보와 세력 확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중국의 전통 정치사상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았다. 포악한 군주를 벌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한다는 조민벌죄(弔民伐罪)는 정복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었다. 《맹자(孟子)》는 폭군을 제거하고 백성을 위로하자 사람들이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기뻐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복군이 생명과 생업을 보호하고 백성도 새 질서를 이전보다 낫다고 받아들일 때라야 그 명분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일으킨 비수대전(水大戰)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부견이 동진(東晉) 공격을 논의하자 신하들은 장강의 협준함과 동진의 결속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부견은 “나의 군사들이 채찍을 장강에 던지기만 해도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여기에서 투편단류(投鞭斷流)라는 말이 나왔다. 부견이 말한 강은 전투가 벌어진 비수가 아니라 동진을 보호하는 장강(長江)이었다.

부견은 근거 없이 큰소리만 친 군주는 아니었다. 그는 왕맹(王猛)을 등용하여 행정과 군사를 정비하고 전연(前燕), 전량(前), 대(代) 등을 정복하였다. 376년에는 화북의 대부분을 하나의 정권 아래 통합하였다. 그러나 이때만 성공은 군사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키웠다. 과거에 성공한 방법이 앞으로도 통하리라고 믿은 것이다.

왕맹은 죽기 전에 동진을 서둘러 공격하

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석월(石越)도 “동진이 비록 덕이 없으나 그러한 죄는 없다”고 간하였다. 동진의 군주가 포악하여 백성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부가 무너져 민심이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부견에게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동진 백성이 그 통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의 남정에는 범죄의 대상도, 조민의 명분도 충분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방은 영토상으로 통일되었지만, 전진에 정복된 선비(鮮卑), 강족(羌族)과 여러 지역 세력이 하나의 나라로 결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전진이 흔들리면 다시 독립할 수 있었다. 반면 동진에는 사안(謝安)과 사현(謝玄)이 있었고, 조정과 군대도 아직 결속되어 있었다. 부견은 전진 내부의 균열은 작게 보고 동진 내부의 결속은 가볍게 여겼다.

383년 부견은 사료상 병사 60여만과 기병 27만에 이르는 대군을 일으켰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은 군대의 행렬이 천리에 이어졌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선봉과 후방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여러 종족과 지역에서 모인 병사들을 먹이고 이동시키며 하나의 명령으로 움직이게 하기도 어려웠다. 대군은 힘의 증가인 동시에 지휘와 보급의 부담이었다.

이에 맞선 동진군은 약 8만 명이었다. 사안은 조정을 안정시켰고 사현은 북부병(北府兵)을 훈련해 놓았다. 동진군은 전진의 대군이 모두 집결하기 전에 선봉을 공격하였다. 비수에서 전진군이 동진군의 도하를 유도하려고 물러나자 이 후퇴는 곧 혼란으로 바뀌었다. 동진에서 붙잡혀 왔던 주서(朱序)가 “전진군이 패했다”고 외치자 병사들은 앞다투어 달아났다.

비수에서 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분산된 대군의 낮은 결속과 지휘 실패, 퇴각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이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함께 싸워야 할 목적과 신뢰의 부족이 있었다. 부견은 동진의 군사력은 작게 보면서도 그군 사람들이 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의지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통일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보다 대군의 규모를 내세웠다. 눈에 보이는 무기의 수는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세지 못한 것이다.

패전하자 전진의 내부 균열이 한꺼번에 터졌다. 전연 출신 모용수(慕容垂)는 후연

(後燕)을 세웠고, 강족 출신 요장(姚萇)은 후진(後秦)을 세웠다. 비수의 패배가 모든 문제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힘으로 눌러 두었던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채찍으로 강물을 막을 수 있다 했던 부견은 오히려 자신이 세운 나라의 독을 무너뜨렸다.

물론 오늘날 무력 사용의 합법성은 조민벌죄가 아니라 유엔 헌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오늘날의 전쟁도 힘과 정당성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이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파괴한다고 해서 이란 국민이 미국이 원하는 정치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방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도해도 주민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대응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격받는 사람들이 전쟁을 구원이 아니라 지배로 받아들인다면 군사적 승리는 저항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전쟁을 시작할 능력과 원하는 결과로 끝낼 능력은 같지 않다.

이 경계는 우리 정치에도 적용된다. 물론 국가 간 침략전쟁과 민주주의의 입법은 같은 일이 아니다. 다수당은 선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그 정책이 국민의 호응을 얻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회 과반 의석도 가진 강한 집권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충분한 설명과 타협을 거쳤는지를 물어야 한다. 다수의 힘을 가진 정당과 타협은 후퇴가 아니다. 절차상의 승리를 사회가 받아들이는 질서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 원칙은 어느 정당이 다수가 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의 순리란 강자가 반드시 지고 약자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비한 법칙이 아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더라도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정된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부견에게는 장강을 메울 만큼 많은 채찍이 있었지만 동진의 백성에게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었다. 오늘의 강자들도 채찍을 던지기 전에 그 힘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를부터 물어야 한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길도 행할 행. 어조사지. 말이어 이. 이를 성.

직역하면 “길은 걸어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즉 어떤 가치나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기보다 실천과 과정이 반복되며 길과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뜻. 따라서 길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널리 쓰이며 삶의 방향도 계획의 완결보다 실행의 축적으로 형성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도회(道晦)

감출 도. 그믐 회.

자기의 재능 학식 지위 재력 등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 태도 도광(滌光):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

양회(養晦)

덕을 기르고 종적을 감추다. 도화와 함께 쓰입니다.

도상무명(道常無名)

길도 항상상. 없음 무. 이름 명.

직역하면 “도는 늘 이름이 없다”는 뜻으로 도의 본질은 언어적 규정이나 개념으로 완전히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자, 도덕경 제32장의 첫 구절로 “도는 항상 이름(규정, 명칭)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도덕경 32장: 道常無名 樸雖小(도상무명 박소야) 天下莫能臣也(천하막능신야) 도는 항상 이름이 없고 규정하기 어렵다. 비록 작아도 도는 누구에게도 쉽게 복속하지 못한다. 박수손느 소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누구도 함부로 부리지 못한다는 비유로 도의 위엄과 힘을 나타냄니다. 왕이나 제후가 도를 지키면 만물이 스스로 질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안동권씨 상주종친회 친선 파크골프대회 개최

상주종친회(회장 권용배)

에서는 회원 22명은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고 건강간 여가를 함께 하는 뜻 깊은 친선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은 경기 내내 웃음과 정을 나누며 더욱 끈끈한 종친 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권도희 상주종친회 총무



〈2026年 10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7.30. ~9.27.
총 납부자 305명

(이름순)

총 10,590,000원 단위:원

권 근(서울 중랑) 30,000	권기현(전북 전주) 30,000	권상진(경북 경주) 30,000	권영각(경북 경주) 30,000	권영순(경북 영주) 30,000	권오달(서울 관악) 30,000	권오해(강원 강릉) 30,000	권재원(대구 달서) 30,000	권철용(경기 수원) 30,000	권학성(경북 포항) 30,000
권경식(서울 금천) 30,000	권갑상(강원 강릉) 30,000	권상택(경북 경주) 30,000	권영관(경기 안동) 30,000	권영시(서울 송파) 30,000	권오만(경기 광명) 30,000	권오해(경기 김포) 30,000	권재철(경남 산청) 30,000	권태원(경기 여주) 30,000	권학수(전북 정읍) 30,000
권경달(서울 강동) 100,000	권대욱(경기 안양) 30,000	권상호(경북 봉화) 30,000	권영구(서울 광진) 30,000	권영식(경북 상주) 30,000	권오선(경북 경산) 30,000	권오현(서울 강남) 30,000	권재철(경북 영양) 30,000	권태근(강원 평강) 30,000	권혁우(강원 강릉) 30,000
권경민(인천 서구) 30,000	권대윤(서울 마포) 30,000	권상호(충북 제천) 30,000	권영국(대구 수성) 30,000	권영식(경북 안동) 30,000	권오선(경북 칠곡) 30,000	권오현(서울 동작) 30,000	권재호(경남 산청) 30,000	권태근(경기 성남) 30,000	권혁우(인천 강화) 30,000
권경상(충북 제천) 30,000	권대일(대구 달서) 30,000	권석범(전북 군산) 30,000	권영국(충북 옥천) 30,000	권영식(대구 북구) 30,000	권오성(경기 광명) 30,000	권오현(전남 목포) 30,000	권재홍(경남 거창) 30,000	권태근(경기 수원) 30,000	권혁웅(경북 경주) 30,000
권경식(충북 청주) 30,000	권대직(경북 안동) 30,000	권석재(경기 산청) 30,000	권영국(경남 하동) 30,000	권영식(대구 수성) 30,000	권오성(경기 부천) 30,000	권오현(충북 청주) 30,000	권태원(경북 안동) 30,000	권태원(경북 경주) 30,000	
권경진(경남 김해) 30,000	권대표(경기 용인) 30,000	권석조(대구 동구) 30,000	권영국(경기 양평) 30,000	권영식(서울 강북) 30,000	권오성(경북 예천) 30,000	권오형(강원 강릉) 30,000	권정각(경북 안동) 30,000	권태식(경주 동성로) 30,000	권혁조(경북 안동) 30,000
권경진(부산 연제) 30,000	권동국(경북 안동) 30,000	권선식(전북 익산) 30,000	권영국(경남 밀양) 30,000	권영운(경북 봉화) 30,000	권오수(대구 동구) 30,000	권오홍(경북 예천) 30,000	권정대(대구 동구) 30,000	권태식(경기 양주) 30,000	권혁주(서울 도봉) 30,000
권경호(경북 영양) 30,000	권동철(전남 광양) 30,000	권성근(경남 산청) 30,000	권영국(경북 안동) 30,000	권영민(경남 함안) 30,000	권오순(경북 영양) 30,000	권오화(경북 영덕) 30,000	권정숙(경남 양산) 50,000	권태유(대구 서구) 30,000	권혁준(경기 이천) 30,000
권개술(부산 동래) 30,000	권동현(경북 청도) 30,000	권성오(경남 창원) 30,000	권영기(경기 가평) 30,000	권영림(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옥술(서울 송파) 30,000	권정택(경북 안동) 30,000	권태일(경기 안산) 30,000	권형태(경기 용인) 30,000
권계자(경북 안동) 30,000	권두상(경북 의령) 30,000	권성오(대구 동구) 30,000	권영기(경북 영덕) 30,000	권영주(경북 상주) 30,000	권오연(경북 안동) 30,000	권옥주(경북 안동) 30,000	권종덕(경기 파주) 30,000	권태진(강원 강릉) 6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고덕(서울 서초) 30,000	권만길(경기 성남) 30,000	권세영(경북 안동) 30,000	권영기(서울 광진) 30,000	권영주(경북 안동) 30,000	권오영(강원 강릉) 30,000	권용택 30,000	권종욱(경북 영주) 30,000	권태진(경북 예천) 30,000	권혁필(대구 동구) 30,000
권광국(경남 창원) 30,000	권만섭(전남 광양) 30,000	권세원(경북 안동) 30,000	권영길(경기 고양) 30,000	권영주(경북 영주) 30,000	권오영(서울 은평) 30,000	권용택(강원 평강) 30,000	권종욱(대구 달서) 30,000	권태평(전북 전주) 30,000	권혁화(경북 성주) 30,000
권규현(서울 동성) 30,000	권명순(경북 청주) 30,000	권승열(경남 고성) 30,000	권영달(서울 강남) 30,000	권영준(서울 관악) 30,000	권오정(경기 안동) 30,000	권용호(경기 파주) 30,000	권종훈(서울 은평) 30,000	권태원(대구 수성) 30,000	권혁환(경기 의왕) 30,000
권계자(경북 안동) 30,000	권두상(경북 의령) 30,000	권성오(대구 동구) 30,000	권영기(경북 영덕) 30,000	권영주(경북 상주) 30,000	권오정(경북 안동) 30,000	권옥주(경북 안동) 30,000	권종욱(경기 파주)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고덕(서울 서초) 30,000	권만길(경기 성남) 30,000	권세영(경북 안동) 30,000	권영기(서울 광진) 30,000	권영주(경북 안동) 30,000	권오영(강원 강릉) 30,000	권용택 30,000	권종욱(경북 영주) 30,000	권태원(대구 수성) 30,000	권혁환(경기 의왕) 30,000
권광국(경남 창원) 30,000	권만섭(전남 광양) 30,000	권세원(경북 안동) 30,000	권영길(경기 고양) 30,000	권영주(경북 영주) 30,000	권오정(경기 안동) 30,000	권옥주(경북 안동) 30,000	권종욱(경기 파주)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규현(서울 동성) 30,000	권명순(경북 청주) 30,000	권승열(경남 고성) 30,000	권영달(서울 강남) 30,000	권영준(서울 관악) 30,000	권오정(경기 안동) 30,000	권옥주(경북 안동) 30,000	권종욱(경기 파주)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덕(대구 수성) 30,000	권문중(경북 안동) 30,000	권수익(충북 제천) 30,000	권영대(경기 고양) 30,000	권영철(경남 창원) 30,000	권오정(경북 안동) 30,000	권우영(경남 양산)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문(경북 문경) 30,000	권미송(경북 경산) 30,000	권숙자(경북 안동) 30,000	권영도(경남 창원) 30,000	권영태(대구 수성)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우영(경기 안양)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문(경남 창원) 30,000	권민호(경남 창녕) 30,000	권숙자(대구 달서) 30,000	권영도(경북 영천) 30,000	권영태(경남 김해)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포항)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문(충남 아산) 30,000	권민호(경기 안양) 30,000	권순덕(서울 강남) 30,000	권영도(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남 김해) 30,000	권오준(서울 노원)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백(경북 경주) 30,000	권병덕(인천 부평) 30,000	권순배(경북 문경) 30,000	권영도(서울 동봉) 30,000	권영태(경남 김해)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봉(경북 안동) 30,000	권병민(충남 서천) 30,000	권순배(세종 진흥) 30,000	권영택(경북 청주)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기 남양주) 30,000	권원수(강원 강릉)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순(대구 수성) 30,000	권병우(경기 안양) 30,000	권순범(경기 안양) 30,000	권영택(경기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경주)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영(서울 양천) 30,000	권병정(경기 양평) 30,000	권순일(경북 상주) 30,000	권영택(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경주)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원(경북 경주) 30,000	권병천(경기 김포) 30,000	권순자(서울 양천) 60,000	권영택(경기 수원) 30,000	권영태(경기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우(부산 서해) 30,000	권병환(서울 강북) 30,000	권순정(경북 안동) 30,000	권영무(경기 안양) 30,000	권영태(경기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인(경북 안동) 30,000	권부중(전남 고흥) 30,000	권순주(경기 부천) 30,000	권영무(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일(대구 북구) 30,000	권사현(경남 김해) 150,000	권순채(경북 경주) 30,000	권영무(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재(부산 부산진) 30,000	권사현(경남 김해) 150,000	권순채(경북 경주) 30,000	권영무(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준(강원 강릉) 30,000	권사현(경북 안동) 30,000	권순채(경북 경주) 30,000	권영무(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진(경북 예천) 30,000	권사현(경북 안동) 30,000	권순채(경북 경주) 30,000	권영무(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태(경북 포항) 30,000	권사현(경북 안동) 30,000	권순채(경북 경주) 30,000	권영무(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권기현(경남 산청) 30,000	권사현(경북 안동) 30,000	권순채(경북 경주) 30,000	권영무(경북 안동) 30,000	권영태(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북 안동) 30,000	권원수(경북 안동) 30,000	권준희(대구 달서)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권혁철(경북 안동) 30,000

✦연간 홍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